지금 절 집엔 웬 종일 잡상인들만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지금 사바세계는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병으로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 한 번 또 묻습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길에서 말기 암환자, 전이된 암환자, 조현병, 희귀병(백혈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환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대표 주자랍시고 세계 00대회라는 큰 잔치판을 벌여놓고 말로만 떠들고 있을 때,

"수행력(법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기 조현병 환우가 오면 어떻게 하실 런지?" 묻자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또 공영방송에서 알만한 스님이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럼 아라한과 (신통묘력)를 증득했던 부처님 제자 1250아라한을 비롯 조사스님(서산 · 사명 · 원효 · 진묵 · 만공 · 경허 등등) 그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외면했을까요?

여기서 살펴볼 일은 부처님당시 제자들과 이후 조사스님들은 **아라한과를 얻어 한결같이 법력(신통묘력)을 보이신 이후에,** 지금까지 왜 아라한과를 득한 이는 아예 보이지 않고 저잣거리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얻었노라고 입으로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부처님은 항상 광명을 나타내어 위신력(신통묘력)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설법을 하셨다. (능엄경 등 각 경전 참조)

어느 큰스님 법문 중 "예수는 길을 가다 환우를 만나면 기도를 통해 그를 낫게 해주고 길을 떠났으나, 나는 수행의 결과인 법력이 없어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평생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얼마 전 안거 입제 한다고 떠들썩하게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부처님 당시 그 흔했던 아라한은 또 물 건너간 것인가?....

해서 한마디 던지고 자 함은 **수행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앉지 말고 서서 움직이는 것으로서 저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화엄경 주인공인 보현보살처럼 불보살이 계신 곳에서 보현행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아마 전 세계 매스컴이 난리가 날것이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이때 산 중에 있는 선원, 무문관 등을 저들을 위해 내어놓으면 어떨는지.**

어차피 시주의 주인이 저들이 아니던가.

〈사례 : 희귀병〉

서울 대형사찰에 있을 때 동안거는 끝나고 00대학 학부생활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대웅전에서 새벽예불과 금강경독경을 마칠 무렵 주지스님이 법당에 들어왔다. 독경을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주지스님이 보고 가라며 주지실 로 안내하는 것이다.

들어서자마자 쇼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사무실 문을 열고 혹 소임자들이 있는 가 살피고는 문을 닫고 얘기하는 것이다.

대뜸 "자네 법명이 00 맞는가" 라고 하길래 "맞습니다." 했다. 그리고 "자네 고향이 00 맞는 가"라고 하길래 "맞습니다." 했다. "자네 여기 온지 얼마나 됐냐?"고 하길래 "0년 되었고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대웅전에 예불과 기도를 했냐?"고 하길래 "태백산 은사절에서 내려와 학교 기숙사 생활 0개월 빼고, 0년 0개월째 부전을 자처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절 들은 아예 부전을 두거나 아니면 사중스님들이 몇 개월씩 돌아가며 부전 소임을 하고 있다.

소납이 있던 절은 후자에 속했고, 스님들도 수십 명이 되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듣고 이 얘기는 우리들 외에 절대 사중스님들이 알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주지스님과 인연이 되어 신행생활을 하시는 분이 약 6개월 정도 소식이 없다가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물으니 "그동안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하며 대뜸 "법명은 00이고 고향은 00이며,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키는 어느 정도 되며 등등해서 꼭 좀 찾아 달라."는 것이다.

얘기인 즉 스님과 통화 3일 전 새벽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빙그레 웃고만 있다가 사라졌고, 둘째날 새벽꿈에 또 그 스님이 나타나 미소만 짓고 있길래 법명을 물으니 00이라 하였고, 그 다음 날 삼일째 새벽꿈에 또 나타났길래 이번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하니 00이라고 하며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주지스님은 상좌스님을 시켜서 우리절에 이런 스님을 모르게 꼭 찾아보라고 해서 자네를 찾아냈다고 한다. 사실 큰 절 주지스님들은 대외적인 일에 얽매이다 보니 사중스님들 법명은 물론 얼굴조차 알기 어렵다.

자네 새벽에 예불과 기도가 끝나면 몇시나 되냐고 묻길래 06시정도 돼야 끝난다고 하니,

그럼 신도들 눈에 안 띄게 다 나가고 난 뒤 그 신도를 내일 새벽에 데려올 테니 7일간 기도를 부탁한다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사중에 소문이 나면 타스님들로부터 자네가 힘들어 질 걸세 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신도들이 다 나가자, 주지 스님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 상좌 스님과 신도분이 들어오는 것이다.

주지스님이 나를 좀 밝은 곳으로 오게 하여, 그 신도 보고 이 스님이 맞는가? 잘 보라 하자, 꿈에서 본 스님이 꼭 맞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7일간 기도를 마치는 날 소납이 한마디 했다.

보살님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가지고 3일간 더 하세요 하자, 주지스님이 왜냐고 묻길래

보살님한테 직접 물어 보십시오 하니, 그 보살이 오늘 여기 오기 직전 새벽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00을 한쪽만 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3일간 기도가 끝나는 새벽꿈에 나머지 한쪽을 받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답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길래 다 사양하고 몇몇 분들과 같이 경기도 모 암자에 가서 그들은 천배를 했고, 소납은 삼천배를 했었다.

그 때 그 일이 있은 후 사중에 소문이 순식간에 나게 되어 사중스님들로부터 겪은 고초는 너무나 컸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 즈음에 새벽의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노부부께서 "스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절 뒤로 가서 조용이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는지? 뵙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오래전부터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조현병을 앓아 왔다."고 하길래 "그럼 잘못 찾아왔다."고 하며 한사코 물리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자세히 물을 테니 조금도 거짓말 하지 말라며 묻기 시작했다.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서울 대형 사찰 신도이고 그동안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럼 어느 분이 여기 얘기하더냐 했더니 큰절 00큰스님께서 어느 절, 법명까지 적어 주며 빨리 찾아가라고 그리고 거절하면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그 당시 소납 사정도 여의치 않지만 하는 수 없이 그래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몇 월 며칠 일자를 정해주고 그날 예불 끝나는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오시되 그 절에서 준 부적 · 염주 등 방편물을 다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보내고 난 뒤 소납이 졸업과 동시 그 일을 해주고 떠나려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믿을 만한 신도분한테 며칠날 노부부께서 예불이 끝나면 남아있는 분이 있을 테니 소승이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이절을 떠나 태백산은사스님 절로 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부탁했으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태백 은사 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뜻한 바가 있어 서울 인근 토굴에서 또 다시 대학원생활을 십년 가까이 했었고, 그 당시 노부부에게 얘기를 전해준 그 분들은 몇 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기 거제도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

소납이 있는 사찰은 잡귀행상에 불과한 비불교적인 것 술 · 담배 · 점 · 관상 · 사주 · 삼재풀이 및 기도 · 산신기도 · 용왕기도 · 방생 · 성지순례 · 다도 · 수능합격기도 · 신년기도 · 위폐(만년 · 평생 · 영구) · 스님생일 · 우담바라 · 각종 바위 · 탑돌이 ·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 돈 액수에 따른(큰 등 · 작은 등) · 등 종류(108 · 사업성취 · 재수 · 합격 · 승진 등등) 부전 · 공양주 · 그림(소승은 출가전 화가였음) · 극락발원티켓 · 철야기도 · 신도회 · 절 짓는 불사 · 각종기도(운맞이 · 운수대통 · 재수대통 등) · 진산식 · 합창단 · 산사음악회 등등 '생전예수제'에는 재 지낼 돈을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미리 선업을 닦도록 하기 위해 복지관 · 장애인 단체 · 요양원등, 아니면 시골 부모 찾아서 효행을 하도록 함.

이러한 잡귀행위를 일체 배제하다 보니 재정이 항상 바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공양(교육불사)을 하기 위해 이 지면을 빌리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에서 최고의 공덕은 금강 경의말씀과 양무제와 달마스님의 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찰 살림살이는 가구를 비롯 모든 것 줏어다 쓰고 있고, 양말 등 모든 것은 전량 기워 쓰고 있으며, 적당히 농사지으며,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찰건물 및 내부 조성물도 일체 시주 돈을 받지 않고 건립하였습니다.

누구든 법문을 듣고자 하면 오실 필요 없고, 수행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보현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는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방송에 유명한 큰절 큰 00들이 집단으로 수백만 원씩 걸어놓고, 밤새워 도박을 하다 예불직전인 새벽 3시에 마치고 법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서울 강남에 있는 000선원 큰 00은 00선원장도 하고 수십 안거를 충만했다고 하며 법화경 00찾아서 라는 법어집도 냈던 이가 하는 짓거리는 모텔 · 호텔에서 신도를 전라로 만들어 소위 몸기도 한다면서 더듬기나 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그런 돈 있으면 이 소납이 언론을 통한 바른 법공양이라도 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면 기꺼이 받겠다.

참고로 신문사 지면 빌리는데 일회당 000만원이 든다.

※ 알립니다.

코로나 환란과 관련하여 연등사신도님들과 더불어 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도님들이 한결같이 인연되는 전 불자와 같이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길래 다시 알리고자 합니다.

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소, 이름 등 연락처를 알려 주시고 동참금은 정성껏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비 전액은 신문사 지면을 통한 법공양을 위해 쓰임을 알립니다.

소승이 독경 및 일일이 축원해야하기에 많은 인원은 받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8291-9423 (변 ○○)**
- **010-5699-3173 (박 ○○)**
- **010-4807-6932 (박 ○○)**
- **011-9143-0098 (김 ○○)**
- **010-9707-4808 (박 ○○)**

